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8. 28.(금) 조간 배포즉시

부산중기청, '모두의 창업' 2차 도전자 발굴에 힘 모은다

- 1차 모집 경험·노하우 공유, 운영기관별 2차 모집 활성화 방안 논의
- 지역 창업 인프라·네트워크 활용으로 우수 창업인재 발굴 협력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8월 28일(금) 휴앤워크 서구워케이션에서 부산지역「모두의 창업」운영기관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는 창업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8월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2차 프로젝트에서는 전국에서 혁신 창업가 1만 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을 예비창업자로, 비수도권 참여자를 70% 이상 선발할 계획이다.

이에 부산중기청은 부산지역의 역량 있는 창업인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운영기관과 모집 활성화를 위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는 부산지역 「모두의 창업」 허브기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과 11개 운영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1차 모집 과정에서의 기관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관별 특성을 활용한 2차 도전자 발굴 및 홍보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 (1차) 스마트파머, 부산연합기술지주, 젠엑시스, 큐네스티, 부경대, 부산대, (2차) 동아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위프로스 등 11개 운영기관

특히, 기존 운영기관과 2차 프로젝트에 새롭게 참여하는 운영기관이 함께 각 기관이 보유한 창업 인프라 소개 및 네트워크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모집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부산에는 대학과 창업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곳곳에 있다”며, “운영기관들이 가진 현장 네트워크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 실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책임자	과 장	김길상 (051-601-5140)
		담당자	사무관	임종복 (051-601-5157)
			주무관	최정일 (051-601-51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